

# 개막 5연승 롯데, 두산까지 넘을까

### 초반 상승세... 지난해 챔피언 3연전 시험대 수도 닫고 허문회 감독 체제 바뀌 '환골탈태'

올 시즌 개막 초반 돌풍을 일으키는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진정한 시험대 위에 오른다.

개막 2주 차에 접어드는 이번 주(12~17일) KBO리그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매치업은 부산 사직구장에서 맞붙는 롯데와 두산 베어스의 주중 3연전이다.

지난해 최하위와 우승팀의 시즌 첫 맞대결이지만 분위기는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롯데는 개막 후 5경기에서 전승을 거두며 시즌 첫 주를 단독 1위로 마쳤다. 롯데의 개막 5연승은 2013년 이후 7년 만이다.

지난해 부끄러운 경기력 속에 팔찌 수모를 당했던 롯데는 성민규 단장-허문회 감독 체제로 바뀐 뒤 환골탈태했다.

팀 타율 3위(0.295)-팀 평균자책점 1위(3.13)의 이상적인 투타 조화 속에 홈런은 NC 다이노스와 더불어 리그에서 가장 많은 9개를 때려냈다.

유격수 덕은 마차도와 2루수 안치홍의 가세로 센터 라인이 탄탄해진 롯데는 최다 실책 불명예를 썼던 지난해의 이미지를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롯데가 거둔 5연승은 상위권 전력으로 꼽히는 kt wiz, SK 와이번스들

상대로 달성한 것이라 그 의미가 더 육더 날다르다.

지는 법을 잊은 롯데가 과연, 지난해 통합 챔피언으로 올 시즌에도 최강 전력을 자랑하는 두산을 상대로도 상승세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일단 선발 매치업에서는 두산이 앞선다. 두산은 이번 3연전에서 1~3선발 라울 알칸타라, 이영하, 크리스 플렉센이 나란히 선발 등판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는 롯데는 서준원, 박세웅, 장원삼의 출격이 예상된다.

선발 싸움에서는 롯데가 다소 힘겨워 보이지만 변수는 두산의 흔들리는 불펜진이다. 두산 불펜진의 평균자책점은 9.17로 10개 구단 중 최악이다. 공교롭게도 롯데는 5승 중 3승이 역전승일 정도로 뒷심이 좋다.

승부의 추가 일찍 기울지 않는다면 경기 후반 가슴 졸이는 쪽은 두산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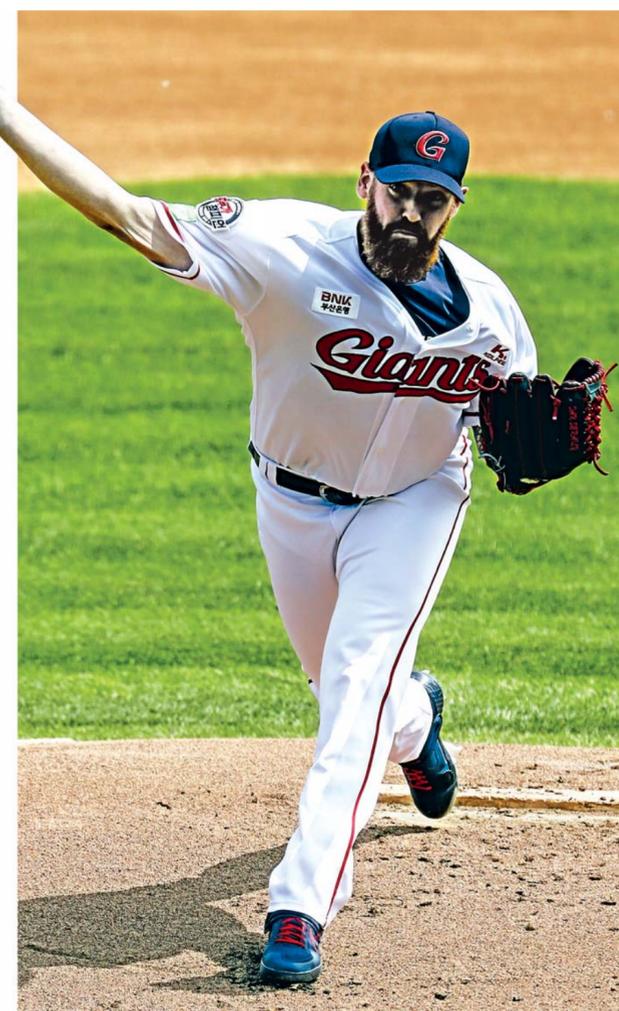
주말 3연전에서는 키움 히어로즈와 LG 트윈스가 서울 잠실구장에서 만난다.

두 팀의 맞대결은 누가 이기든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와 '엘키라스코'라 불렸다.

장(키움)과 방패(LG)의 대결로 정의되지만 키움은 제리 샌즈가 이탈하고, LG는 외국인 '원투펀치'가 기력을 덜 회복하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너졌다.

올 시즌 나란히 우승에 도전하는 두 팀이 '신승 서울 라이벌'의 자존심을 걸고 격돌한다.

연합뉴스



개막 초반 돌풍의 주역 10일 오후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SK-롯데 경기. 1회 초 롯데 선발투수 스트레일리 투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K리그 '초보 사령탑' 데뷔전... 2승 2무 1패 이태원발 집단감염, 야구장 발목 잡나

### 김남일·김길식 승전가 정정용·설기현 무승부 김도균 유일한 패배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던 한국프로 축구 K리그 2020시즌이 큰 관심 속에 스타디움에 지난 주말 막을 올렸다.

K리그1(1부리그) 12개 팀, K리그2(2부리그) 10개 팀 감독 중 올해 프로팀 사령탑으로 데뷔전을 치른 이는 모두 다섯 명이다.

K리그1에서는 성남FC 김남일 감독(사진), K리그2에서는 경남FC 설기현 감독, 서울 이랜드 정정용 감독, 안산 그리너스 김길식 감독, 수원 FC 김도균 감독이 프로팀 지휘봉을 잡고 첫걸음을 뒀다.

K리그 새내기 감독이 이끈 팀의 개막 라운드 성적은 2승 2무 1패였다.

프로 감독 데뷔전에서 승전가를 부른 것은 김남일 감독과 김길식 감독이다.

김남일 감독이 지휘한 성남은 9일 광주 원정에서 광주 FC에 2-0으로 완승했다.

K리그2에서는 김길식 안산 감독이 데뷔



무대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안산은 10일 FC 안양과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6분 터진 이태원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안양은 지난 시즌 3위에 올라 창단 후 처음으로 K리그2 플레이오프에 나선 강팀이다. 하지만 안산은 김 감독과 함께 2년여 만에 안양전 '무승부 사슬'을 끊어내고 2020시즌을 열었다.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정정용 서울 이랜드 감독과 2002 한일 월드컵 4강 주역인 설기현 경남 감독은 K리그 사령탑 신고식에서 무승부를 거뒀다.

리빙딩이라는 최우선 과제에 임기 3년 안에 이랜드를 K리그1에 올려놓겠다는 포부까지 더한 정 감독은 9일 제주 유니타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팀의 1-1 무승부를 지휘했다.

올해 2부리그로 강등돼 설 감독과 함께 K리그1 복구에 도전하는 경남은 전남 드래곤즈와 홈 경기서 0-0으로 비겼다.

다섯 명의 초보 감독 중 유일하게 데뷔전에서 패배의 쓴잔을 든 것은 김도균 수원FC 감독이다.

수원은 9일 대전 하나시타즌과의 원정 경기에서 1-2로 역전패했다.

연합뉴스

KBO, TF서 관중 입장 논의 이태원 클럽 방문 선수 파악

KBO는 일단 무관중으로 시즌을 시작한 뒤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서 구장 전체 수용 인원의 20~25% 정도의 관중을 받을 계획이었다.

프로 10개 구단은 철저한 구장 방역, 입장 관중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줄 서기일정 간격 유지 등의 방식으로 감염 확산을 확실히 통제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발 재확산 우려에 단계적 관중 입장 계획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생겼다.

지난 6일 2명까지 떨어졌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의 영향으로 다시 30명대에 올라섰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최소한 100명이 넘고 수백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중 입장 계획에는 찬물이 끼여졌다.

KBO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관중 입장 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었다.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관중 입장을 준비한다는 방침이어서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코로나 TF 회의에서 관중 입장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각 구단은 외국인 선수를 포함해 해당 기간에 이태원 클럽을 찾은 선수가 있는지 자체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EPL·라리가 등 6월 리그 재개 '안갯속'

### 브라이턴 3번째 확진자 스페인 5명 등 양성반응

6월 재개를 목표로 훈련에 나선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를 비롯해 스페인 프리메리리가와 포르투갈 프리메리리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와 시즌 재개 움직임이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영국 BBC는 11일(한국시간) '브라이턴 앤 호브 앨비언(이상 브라이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세 번째 선수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프리미어리그는 6월초 재개를 목표

로 오는 18일부터 팀훈련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진 선수가 나오면서 악영향을 받게 됐다.

스페인 프리메리리가에서는 무려 5명의 확진 선수가 나와 초긴장 상태다.

라리가는 1, 2부리그 선수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조사에 나섰고, 5명의 무증상 확진 선수가 나오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이밖에 이번 달 30일 시즌 재개를 준비하는 포르투갈 프리메리리가에서도 확진 선수가 3명이나 나왔다.

3월에 중단된 프리메리리가는 이번 달 30일 재개를 위해 지난주부터 팀 훈련을 시작했지만 이번 확진자 발생으로 다시 위기를 맞게 됐다.

연합뉴스

**축합격**

**제9회 변호사 시험**



**부지석**  
(열공계 22세손)  
(부: 부문욱 · 모: 김순희)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부씨 열공계 종친회**  
회장 부광훈 외 종친일동

**축수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안재영**  
(사)한국양봉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사무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한국양봉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부  
지부장 강방철 외 회원일동

**축취임**

**함덕초등학교 제19대 총동창회장**



**양상기**  
(24회)

함덕초등학교 제19대 총동창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함덕초등학교 제24회 동창회**  
회장 송일태 외 동창일동

**축수상**

**보건복지부장관표창**



**권규정**  
(조천농협 과장)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동권씨 응서공파 종친회**  
회장 권오택 외 종친일동